新鮮한 果實에서 榮養을 찾기로 하였는데 그 값만은 매우 싸서 一루비(우리의 약 二五원)로 「바나나」 八개와 「네불」 三개를 구할 수 있읍니다。 이곳 우리 公館도 最近에 事務室이 安定 되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韓印間에 敎授와 留學生의 交換計劃이 實現되기를 바라고 있아온데 그 때에는 누가 이 方面의 硏究를 위하여 二、三年 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짧은 期間이나마 이 땅에서 여러 곳을 찾게 된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읍니다。 新正을 맞이하여 同人여러분께 人事를 드립니다。

(一九六三・一・二)

南大門 通信(六)

金 正 基

一、 지난 十二月 二七日 午後二時 上樑式을 擧行하였는 바 最高會議文社委員長 및 鄭文社委員、文敎部長官、서울特別市長、文化財管理局長등 關係機關의 責任者와 文化財保存委員을 비롯하여 從來 南大門重修工事에 關係있던 多數人士께서 參席하였다。 新年에 들어서는 七日부터 殘餘의 木部細部工事를 進行할 豫定이였으나 連日의 酷寒에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工事를 中止하고 있다。

한편 丹靑材料 購入에 關聯하여 品質鑑定을 金基昶氏를 비롯한 斯界의 權威者 五人에 依하여 見本을 鑑定하였으며 더욱 完全을 期하기 위하여 現在 國立工業硏究所에 依賴하여 品質의 分析調査를 進行中에 있다。

新製한 蓋瓦는 方塼을 除外한 大部分이 昨年末부터 入荷되었으며 그 品質調査의 一環으로 國立工業硏究所에 依賴하여 蓋瓦의 吸水率을 調査하여 吸水率로서는 理想的인 結果를 얻어 入荷分全部의 檢收가 끝났다。 檢收에는 蓋瓦에 經驗이 많은 柳海宗氏(石窟庵補修工事現場監督官)의 指導下에 이루어졌다。

雙峰寺通信(二)

申 榮 勳

B、內高柱(心柱)

內高柱(高三三・三五尺 徑一・四〇一尺)는 二、三層을 結構하는데 가장 中心이 되는 部材로 各層舂舌의 뒷몸이 結索되고 四隅의 各部材와 連結되어 建物의 荷重을 重點的으로 支撑하도록 意圖된 것이다。 더욱이 各栱包의 後端위에 올려놓은 平枋形의 積心材를 荷重으로 짓누르고 있어 처마의 荷重으로 因하여 栱包의 先端이 傾斜되는 傾向을 抑制하고 있으며 柱身의 動搖나 逸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各種의 施設을 하였다。 그러나 近來 補修時 原意圖를 忘却하고 恣意로 變形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副屬品들은 제대로의 구실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의 連繫가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攪亂된 事態가 惹起되었으므로 再建時는 徹底한 이 部分의 復原 乃至 補强이 施行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注意하여 復原方案을 檢討하게 되었으니 그 內容은 下記 各項과 같다。

(1) 上端部分

A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宗道里及合閣部分은 後補物임이 判明되었고 本來에는 三層四隅의 舂舌 뒷몸 모두어 꿰어지도록 되었었음이 밝혀졌다。 心柱上端에 他架構없이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지금과 같은 팔작지붕을 꾸밀 수는 없고 지붕끝이 한곳에 모여지는 삿갓형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法住寺捌相殿의 五層屋蓋形態를 連想하게 되는데 지금 心柱에는 그와같은 相輪이 놓였던 흔적은 없다。

(2) 連接部分

心柱는 二本이 連接된 長尺物인데 下部物은 길고 웟것은 짧다。 이음새는 凸凹形으로 上下를 加工하여 끼우고 산지를 큼직하게 아래위로 박아 固定시켰다。

(3) 其他副屬物

上部로부터 ①五・九尺 ②八尺・③四尺 ④二・七尺長의 角木이 ①과②・③과④가 各十字形을 이루도록 엇매껴 꿰어져 있는데 ①과 ②의 間隔은 三・九二尺이고 ②와 ③은 三・五尺이며 ④는 下端溝(双孔長八・三寸 幅四・二五寸)위에 位置하고 있다。 이들은 一層 栱包後端上에 積置한 平枋木을 비롯하여 各層의 同一 部位에 位置하도록 된 것인 바 모두 前記한 바와 같은 荷重의 處理를 意圖한 것이고 最下位의 溝에는 平行木을 꿰어 一層道里目에 놓인 시렁(亦是 平行木)에 놓여 心柱의 下降을 抑制하도록 되었다。 其外 ②와 ③의 사이에 方形溝가 透孔되어 있는데 아무런 裝置가 없다。 用途는 未詳이나 亦是 動搖를 防止하려는 意圖로 加工된 것인듯 하다。 此 副屬物 間間에 舂舌뒷몸을 꿰이는 方形溝가 透孔되어 있다。